

열탕을 끼었으면 흩어져 버리는 팬츠

패셔너블한 란제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. 드레스나 슈트를 선택하는 것과 감각으로 내의의 멋내기를 즐기는 여성이 늘고 있다. 그런데 점차 사용에 따라 낡게 된 쇼트(short pants)의 처분을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다. 가위로 잘라 작게 하여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든가 종이에 싸서 몸통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버리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. 여성의 이러한 고민의 해소를 생각하여 만든 열탕을 끼었으면 흩어져 버리는 쇼트가 있다.

이러한 쇼트는 면니트 원단에 수용성 비닐론섬유를 부분적으로(예를 들면, 바디부분)에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. 이 쇼트는 열탕을 가하면 수용성 비닐을 사용한 부분이 녹게 되어 흩어져 풀린다. 비닐론섬유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열탕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적환경(예를 들면, 착용시에 물을 흘리거나 땀 등의 수분)에 의하여 비닐론섬유가 녹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. 또한 상온에서 쉽게 녹아도 곤란하다. 따라서 이와 같은 쇼트의 등장에 의해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라는 고민 없이도 간단히 버릴 수 있게 되었다. 가격, 색상, 무늬는 보통제품과 거의 같다.